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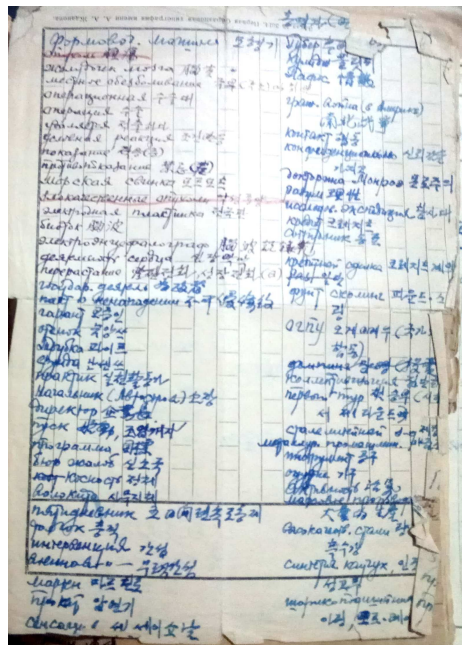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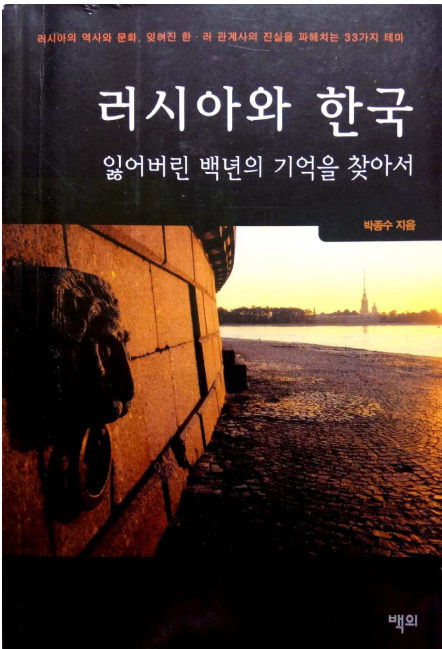
■ **겨레일보 특별기획-러시아 한국어교육의 실태와 발전방향** ▶ 1부/ 한국어 교육의 시작

러, 유럽 최초 한국어강좌 시작

페테르부르그시는 1897년 강좌개설, 카잔시는 1904년 노한소사전 발행까지 혁명전 연해주 한인교육기관 러 공립학교 비해 4배 학생수는 2배 많아 교육활발

한국과 1884년 수교를 맺은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을 겪으면서 엄청난 소용돌이를 헤쳐 나왔듯이 한국어교육도 어려운 시대를 지나왔다. 최근에는 비로서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뛰어넘어서 한류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과 일반의 수요가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 팽창에 비해 한국어교육은 교사의 자질 비롯 학생들의 요구수준에 맞는 교재부족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인터넷환경의 발전과 정보통신기기의 발전은 한국어교육에 새로운 차원의 미래를 열어놓고 있다. **겨레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을 받아 이에 대한 실태분석과 미래의 한국어교육의 발전방향을 총6부에 나누어서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 1부 : 한국어 교육의 시작 - 러, 유럽 최초 한국어강좌 시작
- 2부 : 한국어 교육의 성장기 - 모스크바에서 다시 숨쉬는 '한국어'
- 3부 : 한국어교육의 전성기(1) - 러, 한류로 한국어교육 '날개'
- 4부 : 한국어교육의 전성기(2) - 러 이슬람 본토, 카잔에 부는 '한국어' 열풍
- 5부 : 한국어교육의 미래(1) - '손바닥위'에서 펼쳐지는 '한국어'
- 6부 : 한국어 교육의 미래(2) - 러 '한국어 문화권'은 가능한가



▲ (왼쪽 사진) 제정러시아 시대 최초의 한국어강좌가 시작된 내용과 강좌개설 100주년 기념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에피소드가 실린 박종수 박사의 책자 <러시아와 한국>(2001년) 표지모습. (오른쪽 사진) '쓰레기'로 사라질뻔 했던 <레닌기치> 서재욱 초대 주필의 <조로사전> 육필원고. 소련에서 인쇄된 원고지에 적혀져 있다.

<겨레일보>박종권기자 www.koreans.ru
조선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만남. 1884년 조러통상조약 체결.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1897년 러시아 최초의 근대식 한국어강좌가 러시아 페테르부르그 대학교에 개설되었다. 2년 뒤에는 블라디보스토크대학 동방학연구소에서도 조선어강좌가 개설되었다.

이는 러시아와 당시 대한제국의 외교 관계가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긴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종수 박사는 자신의 저서 <러시아와 한국>에서 델리아노프 1988년 당시 교육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른 유럽국가들보다도 더 많은 교류가 있는 한국이 우리에게 별로 소개되지 않고 있어서 유감이라며

러시아가 한국어학습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제정러시아 시대의 수도였던 페테르부르그 대학에서 개방 이후 91년에 들어가 박사학위를 마쳤다. 그는 유학 당시 1997년 강좌개설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행사가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내용을 '일본어학과와 비교하면 재벌기업과 구멍가게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관심 미약과 열악한 한국어 지원상황을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한국어 교과서가 없어 여전히 복한교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저자는 책에서 다행히 사흘간 진행된 한국어국제학술대회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국내대학의 학자들은 물론 영국의 런던대,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대, 스웨덴의 스톡홀름대 등 전세계 한국학 관련학자 50여명이 참여하여 언어 문학 역사 사회 정치 경제 등 제반분야에 걸쳐 수준 높은 논문을 발표하면서 성공리에 끝을 맺었다고 적으면서 "이제 문화 투자에 백년대계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러시아혁명 이전 강좌개설 이외에 한국어교육에 특기할 만한 일이 일어났다. 러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에 <카잔외래 사범신학교>에 재학중인 한인 유학생들에 의해 <러한소사전>이 제작되었다. 총 5권으로 러-일 전쟁의 군인들을 위한 사전으로 지금 이 책들은 카잔연방대학교

기록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다.

카잔연방대학교 한국학연구소장 고영철 교수는 한인 유학생들이 이 사전을 제작했다는 사실을 기초로 자신의 논문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한인사회 초기의 교사양성과 교사들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또다른 논문에서는 러시아 혁명 전후와 스탈린 강제이주 전후 그리고 1945년 광복이후와 개방 이후로 나누어 한국어교육의 역사와 현재상황 그리고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들면서 잘 밝혀내고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러시아 혁명 이전에 연해주 한인교육기관은 러시아 정부설립의 공립학교수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182개교 그리고 학생수도 5천750명으로 2배 이상 많다.

또 혁명이후는 소련당국의 동화정책으로 러시아식 학교로 통합됨으로 말미암아 기존 한인 민족학교는 모두 폐쇄되었고 1937년에는 스탈린에 의해 한인들이 연해주로부터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되었으며 그 후 20년동안 고려인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연구가 중단되었다고 적고 있다.

논문은 이어서 해방이후에는 한국어교육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1946년 모스크바동방대학에서 황동민 등 3명이 한국어를 가르쳤으며 그 다음해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한국어학과를 개설되고 몇년 뒤에는 한국어교과서와 한-러사전이 발간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사할린의 경우는 소비에트정권이 사할린을 통치하기 시작한 1946년 한인들을 위한 조선학교 설립을 허가하여 전과목을 한국어로 수업했으며 조선학교수는 1958년 당시에는 41개교 7천214명의 학생이 공부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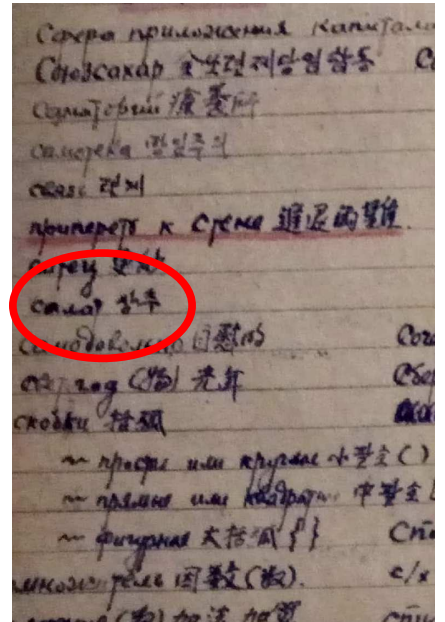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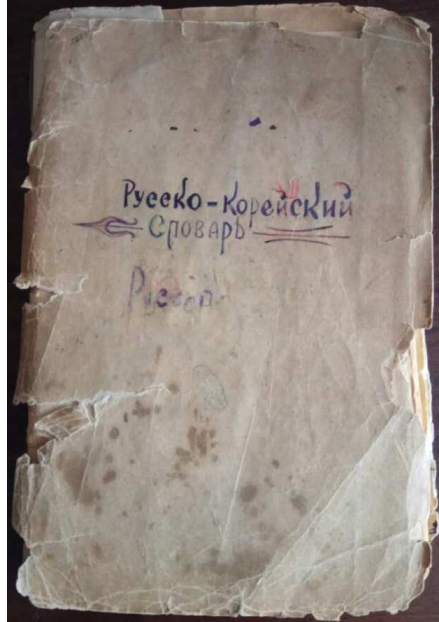
한편 구소련 당시 한국어와 관련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구소련 한인들이 만들어내는 신문인 <레닌기치>. 해외 동포사회에서 한글신문으로 가장 오랜 연륜을 지녔다. 이 신문은 20세기초 스탈린의 소수민족 집단이주정책이 시작되기 전 연해주지방에서 발간됐던 한글신문 <선봉>의 맥을 잇고 있다. 당시 동포들의 애환과 정착과정 등을 기록으로 남겨 구한말을 전후한 민족의 수난사를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구소련내에서 진행되는 공화국간 신문이 었기에 고려인들은 이 지면을 통해 혼인이거나 부음 소식을 들었으며 문학작품을 발표할 수 있었다. 구소련이 해체와 더불어 91년부터는 <고려일보>로 제호가 바뀌었으며 현재까지 카자흐스탄에서 발행되고 있다.

<본 기사는 한국인본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쓰레기더미에서 발견된 <레닌기치> 초대 주필의 <로조사전> 육필원고

직접 만든 초고 사전 단어 하나하나 번역해 꼼꼼히 써내려가
소련인쇄 한글원고지도 보여, 북한 용어 '부루' 대신 상추라고만 번역
저자는 <레닌기치> 초대주필 서재욱 <조로사전> 소련측 편집자



▲ 개방이후 1995년 쓰레기더미에 묻혀 사라질뻔 했던 <로조사전> 소련측 편집자 서재욱씨의 육필원고. 단어 가운데 북한에서 흔히 쓰는말인 '부루' 대신 상추라는 말만 적혀있어 눈길을 끈다. 서재욱씨가 직접 만든 책자형태로 만든 유일본 사전표지.

<겨레일보>박종권기자 www.koreans.ru 1995년 모스크바. 구소련이 해체되고 다시 러시아로 빠진 지 몇년 지나지 않았다. 1991년 한국에서 사업차 소련땅 모스크바로 온 은 교민 K씨는 어느날 산책하러 나왔다 우연히 쓰레기더미에서 한글로 된 책들을 발견했다. 너무나 반가웠다. 당시는 한국어로 된 책이나 방송 등 자료는 너무나 귀했고 일반적으로 모스크바 땅에서 접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한글로 된 책들은 문학에서부터 언어학 역사학 그리고 각종 잡지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았다. 아파트에서 누군가 나와 계속 버리고 있었다. 물어보았다 가져가도 되냐고. 그러자 버리는 거니까 가져가도 된다고 했다.

바로 여기서 발견된 것이 1976년 모스크바에서 발간된 <조로사전> 소련측 편집자 서재욱씨의 육필원고. 단어 가운데는 북한용어 '부루'가 아닌 상추(위 왼쪽 사진)라고만 적혀 있는 것이 눈길을 끌었다. 서재욱씨가 직접 만든 책자형태로 만든 유일본 사전이었다. 서재욱씨는 1938년 창간된 <레닌기치> 초대 주필. 버려지는 것은 그의 장서책자들이었다. 여기에는 남한에서 발행된 <사상계>도 있었다. 또 1946년 7월 25일 북조선예술총연맹 <문화전선> 창간호에는 북한 정권이 들어서기 전의 김일성 관련 기사들이 대거 눈에 띄었다. 남북을 통틀어 언어학과 역사학에 관심이 많았던 학자라는 것이 책을 통해 보여졌다. 한글을 모르는 후손들에게는 이 많은 책자들은 단지 쓰레기일뿐이었다. 자칫 모든 귀한 역사적 자료가 사라질 뻔한 순간이었다.

교민 K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하며 이러한 책들을 회수해 일부 잡지류 등을 제외하고는 20여년 이상을 어렵지만 보관해 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조로사전>은 조선과 소련의 공동작업으로 소련측에서는 서재욱을 비롯 총 6명이 참여했으며 북한에서는 최정우를 포함 5명이 함께했다. 사전은 1976년 소련에서 발간된 최초 대형사전으로 15만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 사전은 조선과 러시아측 통역자 그리고 한국문화와 역사 경제 등 동양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이해하는 외국 전문가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로사전> 발간은 구소련시절 한국어교육의 큰 발전을 이루어낸 사건이었다. 그리고 사라질뻔 했던 그 노력의 흔적이 다행히도 발견되어 지금 보여지고 있다. ***